

## 1970년대 청년영화, 저항과 ‘공모’의 균열\*

손영님\*\*

1. 서론
2. 국가의 ‘청년’ 만들기와 대중문화 규제
3. 저항과 ‘공모’의 이중성-〈바보들의 행진〉
4. 결론

### 국문요약

본 글은 1970년대 국가의 ‘청년’ 만들기와 대중문화의 규제 속에 생산된 청년영화의 저항과 공모의 이중적 전략 및 그 균열을 살핀다.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문화와 학력을 획득한 이 시기의 청년은 문화적 주체로 호명됨과 동시에 국가의 경계 대상이 되었다. 당대의 문화를 향유하는 청년의 행위가 국가에 의해 ‘퇴폐’로 규정되면서 행위 주체인 ‘청년’과 대중(청년)문화는 단속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이에 국가는 ‘청년’ 주조를 통해 이들을 새로운 세대로 구성하고자 했다. 반면 영화계는 문화의 주체로 급부상한 청년을 영화의 소재이자 주 소비 계층으로 주목했다.

이처럼 영화계가 청년에 주목했던 배경에는 당시 침체된 영화산업을 회복해야 하는 현실이 놓여 있었다. 또한 유신체제의 영화정책은 영화 제작 전반을 통제함으로써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화제작자들은 새로운 관객층을 확보하기 위한 기획의 일환으

---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1-A00006).

\*\* 전남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로 ‘청년영화를 제작하기에 이르렀다. 청년영화가 영화에 대한 이중검열 등의 엄격한 통제 아래 제작 가능한 틈새를 확보했다는 것은 국가 및 이해당사자들의 ‘공모’를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다. 즉 청년영화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국가의 요구를 수용하는 이중적 전략 속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욕망이 경쟁하는 균열의 지점을 내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청년영화 속 ‘청년’은 국가의 통제 및 관리 대상이지만 사회를 향한 일탈행위를 일삼는 주체이자 국가의 요구에 부합한 ‘명랑성’과 ‘건전성’을 잃지 않는 주체로 상징되었다. 이와 같은 영화 속 청년의 명랑성은 규제에 대한 저항을 우회하는 것으로 ‘공모’의 의도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주제어: 1970년대, 대중문화, 청년, 주조, 청년영화, 명랑성, 공모)

## 1. 서론

1970년대는 “대량생산-대량소비”가 가능해지면서 대중문화의 영역이 확장된 시기이다.<sup>1)</sup> TV 등 대중매체의 보급 및 제도적 정비는 대중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소비사회의 확산을 가속화시키는 것이었다.<sup>2)</sup>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주 대상은 경제발전의 가시화를 목격하며 성장한 ‘청년’이었다.<sup>3)</sup> 하지만 이 시기는 유신체제라는 억압적 상황으로 국가 차원

1)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93쪽. 황병주에 의하면 근대화와 연동되어진 ‘대중사회’는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초래한 대량생산-대량소비가 가능”해진 사회를 의미한다.

2) 임종수, 『1960~70년대 텔레비전 붐 현상과 텔레비전 도입의 맥락』, 『한국언론학보』 48권 2호, 한국언론학회, 2004, 85쪽.

3) 최은영, 『1970년대 대중소설의 ‘청년’ 표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의 감시와 통제가 전개되었다.<sup>4)</sup> 따라서 국가는 청년을 통해 발생하는 문화의 파급력을 인지하였고 대중문화의 규제와 함께 청년을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국가가 청년을 주조의 대상으로 상정한 반면 영화계는 대중문화를 빠르게 흡수하고 향유하는 측면에 주목했다. 무엇보다 청년에 의한 통기타, 블루진, 생맥주 등의 적극적 소비는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sup>5)</sup> 이에 영화제작자들은 '불황 및 침체기'로 이어지는 영화계의 상황을 의식하며 '청년영화'를 생산했다.<sup>6)</sup> 단속과 검열이 일상화된 유신체제에서 청년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대하고 또 이를 반영한 영화제작이 가능했던 그 지점을 살피는 것은 1970년대를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의 일부가 될 것이다.

억압적인 상황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청년과 영화생산자들의 저항 또는 돌파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시대에 대한 '저항'이 국가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배출구 역할의 코드로 설정됐다면, 이는 체제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sup>7)</sup> 즉 국가는 사회·정치

---

1970년대 대중 소설 속의 청년 표상을 연구한 최은영은 1970년대의 청년의 범주를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남성뿐만 아니라 "대학생·재수생·노동자" 등으로 확대 사용하였다. 이에 동의하며, 본 글이 언급하는 1970년대의 '청년'은 대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지칭한다.

- 4) 권혜령, 『유신헌법상 긴급조치권과 그에 근거한 긴급조치의 불법성』, 『법학 논집』 14,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9, 182-190쪽. 권혜령은 박정희 정권이 반공과 안보를 유신체제 유지의 유일한 이데올로기로 삼고 전 국민을 감시와 처벌 하에 두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 5) 권은선, 『1970년대 한국영화연구-생체정치, 질병, 히스테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61쪽.
- 6) 김동호 외, 『한국영화 정책사』, 나남출판, 2005; 배수경, 『한국 영화검열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정권별 특징과 심의기구의 변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7) 유선영, 『과민족화 프로젝트와 호스티스 영화』, 공제욱 엮음, 『국가와 일상-박정희 시대』, 한울, 2008, 332-398쪽.

적 현실을 소비시키는 차원에서 또는 청년들이 이를 외면할 수 있도록 저항적 정서를 담고 있는 영화 생산을 허용했다는 것이다. 곧 이것은 국가의 '위기와 모순'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sup>8)</sup> 다시 말해 청년영화의 생산은 지배와 저항이 관철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여러 주체들의 다양한 욕망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산물이다.

따라서 본 글은 경제성장과 연결된 청년층의 형성과 청년을 둘러싼 국가와 영화계의 문제의식, 청년영화가 구현하는 저항과 공모의 의미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탐구하고자 한다. 즉 '문화가 사회를 반영한 생산물이자 자체 발전의 요구를 가지고 있음에 유의한다면, 청년영화를 둘러싼 문화적 패턴의 설명은 1970년대 전반기를 보는 또 다른 통로가 될 것이다. 이에 본 글은 시대상을 살피는 소재로서 '영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영화는 당대의 사회와 문화를 반영한 생산물이자, '텍스트'로서 '역사연구'의 주요한 '사료'의 가치를 갖는다.<sup>9)</sup> 현재 영화를 사료로 한 역사연구는 정착되어, '영화 자체의 역사'에 관심을 갖기 보다는 '영화와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관점에서 '영상시대'<sup>11)</sup> 대표되는 새

8) 김한상, 『박정희 정권기 가족사서의 균열과 저항-김수현의 멜로영화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5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09, 300쪽. 김한상은 〈별들의 고향〉과 〈영차의 전성시대〉의 흥행을 통해 "박정희 정권의 가부장적 지배의 위태로움을 폭로하는 균열의 가능성"을 파악했다.

9) 이하나, 『국기와 영화-1950~60년대 '대한민국'의 문화재건과 영화』, 혜안, 2013, 32-33쪽.

10) 마르크 페로, 『역사와 영화』, 주경철 역, 까치, 1999. 영화를 역사학의 영역으로 다루는 것은 역사방법론의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영화는 당시의 시대상을 설명하기 위해 문화사의 일환으로 차용되면서 역사학에 영향을 주고 있다.

11) 안재석, 『청년영화 운동으로서의 '영상시대'에 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24-39쪽. 1970년 전반기 하길중, 이장호, 김호선 감독 등 일군의 신예작가들이 침체기인 영화계에 참신한 기운을 불어넣었으며, 청년영화 운동으로 확산되어 "영상시대"를 태동시켰다. 『영상시대』는 상업영화에서 침체된 영화계의 활로를 찾기 위해 만든 운동단체이자 계간지로 1975년 7월부터 1978년 6월까지 존재했다. 변

로운 신예감독의 작품들로는 이장호의 〈별들의 고향〉, 하길종의 〈바보들의 행진〉 등이 있다.<sup>12)</sup> 이 영화들은 1970년대 대표적 흥행작으로서 '청년영화'라는 호명을 획득한 작품이다.<sup>13)</sup> 영화가 대중성을 획득했다는 것은 대중의 욕망을 읽어낸 성과이자 국가의 시선 및 요구의 복잡한 결을 적절하게 수용·활용한 결과이다.

황혜진, 권은선, 정중현의 연구물은 1970년대 '한국영화연구'라는 큰 틀에서 본 글의 분석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14)</sup> 이들 연구에 나타난 대중문화와 청년 그리고 청년영화의 관계성에 관한 문제의식은 본 글을 구성하는 데 시사점을 주었다. 그리고 청년영화의 원작인 대중소설을<sup>15)</sup> 분석하거나 청년영화<sup>16)</sup> 자체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무엇보다

인식, 이장호, 김호선, 홍파, 이원세가 선언문을 발표했고 인기 있는 원작대중소설, 신문소설 등을 영화화하여 흥행돌풍을 일으켰다. 계간지 『영상시대』는 1977년 7월 20일 여름 호를 창간호로 하여 국내영화비평 지면의 확장에 의의를 두며, 1978년 여름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영상시대"는 약 3년 동안 전개한 '청년영화 운동'을 지칭한다.

12) 〈표1〉 〈별들의 고향〉과 〈바보들의 행진〉

제목	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
제작년도	1974	1975
감독	이장호	하길종
원작	최인호	최인호
각본	이희우, 최인호	최인호
주연	신성일, 안인숙, 윤일봉	윤문섭, 하재영, 이영옥

자료: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작품전집-1971-1985』, 1986, 194쪽, 248쪽.

- 13) 『1974년에 개봉한 〈별들의 고향〉은 46만 명, 〈바보들의 행진〉은 15만 3,780명 관객 동원』, 『동아일보』, 1976.2.14, 5쪽.
- 14) 황혜진, 『1970년대 유신체제기의 한국영화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권은선, 『1970년대 한국영화연구-생체정치, 질병, 히스테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정중현, 『1970년대 한국영화사 연구-유신체제기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5) 김미지, 〈별들의 고향〉을 통해 본 1970년대 대중문화와 문학의 존재 양상에 관한 일 고찰』, 『한국현대문학연구』 13, 현대문화회, 2003, 128-159쪽; 이선미, 『청년 연애학 개론의 정치성과 최인호 소설』, 『대중서사연구』 1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0,

다 〈바보들의 행진〉을 전면적으로 분석한 권현정은 “청년의 저항 행위”를 청년문화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킨 점을 비판하면서 박정권이 장려한 ‘명랑한 사회’의 정치적 관계 속에서 살필 것을 주장했다.<sup>17)</sup> 그리고 홍혜정의 연구는 ‘감각성’을 통해 청년영화의 여러 양상을 고찰하고 고유의 특질을 분석했다.<sup>18)</sup> 이처럼 청년영화와 관련된 각각의 주제들이 단독으로 또는 교집합을 형성하며 축적된 연구들은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이해 당사자들의 ‘관계 맺기’의 양상 및 청년영화의 제작 과정과 작품 분석에서 포착되는 저항/명랑의 기능적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하는 본 글과는 주요한 관점이 다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은 청년을 둘러싼 영화계와 국가의 관심을 추적하고, ‘청년’ 만들기과 대중문화 규제의 상관성을 살필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청년영화의 제작과정을 검토하고 작품 분석을 통해 규제에 대한 저항, 그리고 ‘명랑’과 ‘건전’이라는 외피를 통해 가능했던 ‘공모’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당대 신문 및 잡지와 국가의 정책을 직접적으로 살필 수 있는 정책 자료 및 연설문 등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79-112쪽; 김지혜, 「1970년대 대중소설의 영화적 변용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8, 한국 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3, 357-381쪽; 최은영, 「1970년대 대중소설의 ‘청년 표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16) 오진곤, 「1970년대와 1980년대 한국 대학생 영화의 비교분석 연구—〈바보들의 행진〉과 〈미미와 철수의 청춘스케치〉를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10, 현대영화연구소, 2010, 313-344쪽; 이정하, 「시대의 논리와 감각의 논리—〈바보들의 행진〉, 혹은 파산하는 시간에 대한 연구 신체의 존재증명」, 『영화연구』 48, 한국영화학회, 2011, 311-332쪽; 송아름, 「두 개의 “벌들의 고향”과 “청년문화”의 의도적 접속」, 『인문논총』 73권 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123-155쪽.

17) 권현정, 「청년 ‘행위’의 정치성과 그 저항(불)가능성에 대하여—영화 〈바보들의 행진〉을 중심으로」, 『코기토』 81,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586-611쪽.

18) 홍혜정, 「1970년대 청년영화의 감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2. 국가의 '청년' 만들기와 대중문화 규제

1970년대 전반기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대중문화'가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주체들에 의해 소비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sup>19)</sup> 또한 도시의 인구집중, 경부고속도로의 개통 및 교통수단의 발달,<sup>20)</sup> 라디오, TV 등 대중매체의 보편화로<sup>21)</sup> 인해 '대중사회'는 빠르게 확산되었다.<sup>22)</sup> 그리고 '대중사회'는 통기타, 청바지, 미니스커트 등 새로운 '청년문화'를 추동시켰다.

하지만 박정희 정권은 이러한 대중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한 '대중사회'의 출현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유신체제의 극단적인 정치적 억압에서 대중의 정치성은 대중문화의 확산과 함께 문화적인 것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 문화적 변모는 국가의 단단한 정치적 토대

19) 김지영에 의하면 1920년대에 신문잡지 등의 출판물과 새로운 미디어가 보급되면서 '대중문화' 영역이 성장하기 시작했으며 이와 같은 대중문화 자본이 '청춘'을 불러냈다는 것이다. 김지영, 「식민지대중문화와 '청춘' 표상」, 『정신문화연구』 34권 3호, 한국학중앙연구원, 2011, 146-180쪽.

20) 「京釜高速 도로 개통」, 『매일경제』, 1970.7.7, 1쪽.

21) <표2> 都市 및 農村의 TV수상기 보급률(단위: %)

	71년	72년	73년	74년
都市보급률	21.7	31.2	35.2	40.8
農村보급률	3.3	7.2	7.5	8.8
電化率	33.8	44.8	52	59

자료: 「都市 및 農村의 TV수상기 보급률」, 『매일경제』, 1975.4.12, 5쪽.

이 표는 서울, 부산을 포함한 전국 35개 도시를 대상으로 TV수상기 보급률을 조사한 것이다. 1970년대 대중문화를 선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매체는 TV였다. 1964년에 보급된 TV는 3만여 대였지만 1975년에는 180만 대였다.

22) 한국의 1970년대 대중사회·대중문화에 관한 논의는 송은영, 「1960~19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집, 상허학회, 2011, 187-226쪽 참조. 1970년대 초반 한국에서는 '대중사회'에 대한 이론적 탐구 및 논쟁은 다양했다. 「한국도 대중사회인가—서강대학심포지엄 찬반격론」, 『동아일보』, 1971.7.5, 5쪽; 「대중사회와 대중문화-한국적 특징」, 『경향신문』, 1971.7.5, 5쪽.

에 균열을 가할 수 있는 함축적 코드를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하자면 자유와 다양성을 강조하는 대중사회의 출현은 국가에 대한 정치적 도전의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문화를 소비하는 ‘새로운 주체’로서<sup>23)</sup> 대학생과 청년층의 급증, 그리고 그들의 세대감각은 박정권에게 부담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박정희는 대학생과 청년, 그리고 대중문화를 주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를 보도록 하자.

오늘날 가장 都市化되고 가장 풍요하고 또 가장 文明化된 先進國에서 가장 自殺率이 높고 많은 사람들이 精神病院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物質中心的이며 個人主義的인 사회에서는 産業化가 경제적 풍요와 편리한 生活과 함께 人間不在의 황량한 風景을 가져올 수도 있다. 자녀들과 외롭게 公員을 서성거리는 老年層은 물론, 늘어나는 것은 離婚 때문에 父母없이 자라나는 子女들로 보기 딱한 정경이다. 거기서 늘어나는 것은 소년범죄와 젊은 世代의 反抗이며, 強力犯과 無秩序이며, 정신의 불안과 사회의 긴장이라는 것이다. 히피나 長髮族 또는 다른 퇴폐적인 풍조가 퍼지는 것도 결국 정신적인 공허를 메꾸어 보려는 몸부림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sup>24)</sup>

위의 자료에 의하면 박정희는 산업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며 대중문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박정희는 산업화의 모순적인 현상으로서 대중문화 자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늘어가는 소년범죄와 젊은 세대의 반항, 강력범과 무질서, 정신의 불안과 사회의 긴장”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또한 “히피나 장발족”을 “퇴폐적인

23) 이선미, 『‘청년’ 연애학 개론의 정치성과 최인호 소설』, 『대중서사연구』 1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0, 80쪽. 이에 의하면 시대의 특성인 것처럼 청년이 “문화적 주체”로 호명된 것은 1970년대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24) 박정희, 『민족중흥의 길』, 광명출판사, 1978, 147-148쪽.

풍조”로 규정하면서 이러한 대중문화를 “정신적인 공허를 메꾸어 보려는 몸부림”으로 치부하였다. 대중의 일상적 기호의 선택이 정신적 불안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회를 긴장시키는 요소로서 인식되는 순간, 사회의 정화대상이 되었던 것이다.<sup>25)</sup> 즉 대중문화에 내재된 저항 심리를 우려한 박정희 정권은 이것을 퇴폐적인 문화로 규정하고 검열 및 통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청년’이 그들의 문화를 ‘퇴폐’로 규정지어 단속하는 국가를 향해 맞서는 방식은 오히려 위반하고 여기는 “불온”으로 우회하는 것이었다.<sup>26)</sup> 다시 말해 국가의 통제와 단속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발이나 미니스커트 등의 소비는 급감하지 않았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장발을 하고 청바지, 통기타 등의 새로운 문화를 소비하는 대학생 및 청년층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1970년대는 ‘대중적인 대학生の 시대’라고 표현될 만큼 대학生の 수가 급증했다.<sup>27)</sup> 다음의 대학생 증가에 대한 자료를 보자.

〈표3〉 1970년대 대학生の 인구 변화<sup>28)</sup>

(단위: 명)				
년도	대학 수	남학생	여학생	총계
1965	162	102,744	35,050	137,794
1970	168	146,661	48,005	194,666
1975	204	204,399	78,950	283,349

25) 『長髮 등 엄격히 규제 放倫, 퇴폐정화방안 마련』, 『경향신문』, 1971.10.2, 6쪽; 『社會淨化委구성 長髮 등 집중단속』, 『매일경제』, 1971.9.28, 7쪽. 예컨대 정부는 ‘사회정화위를 구성하여 퇴폐풍조정화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합동 단속반을 편성, 장발, 도색영화, 카바레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26) 김기란, 『청년/대중문화의 위상학적 공간으로서의 70년대 소극장운동 고찰』, 『대중서사연구』 22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6, 202쪽. 1970년대 당시 소극장도 청년문화의 자장 안에 있었고 국가의 퇴폐 검열에 대해 불온이라는 저항으로 대항했다.

27)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5·16에서 10·26까지』, 역사비평사, 2007, 169쪽.

28) 송미섭,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변천(1945~1982)』, 『교육학연구』 22권 1호, 28-29쪽의 〈표6〉 설립별 성별 한국대학생형성의 변천상황(1945~ 1982)과 〈표7〉 대학유형별 대학생 수(1965~1982)를 참조하여 재구성.

위의 자료는 1965년에서 1975년까지의 대학생 인구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1960년대에 13만 명에 불과했던 대학생 수가 1970년에는 약 20만 명으로 1975년에는 약 28만 명으로 증가했다.<sup>29)</sup> 또한 당시 신문기사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의 대학생 비율은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 서독, 프랑스 등의 국가보다 약 2배 가량 높음을 알 수 있다.<sup>30)</sup> 이처럼 1970년대에 대학생은 양적으로 팽창했으며, 20세 전후의 ‘청년’을 대표하는 집단으로 성장했다. 나아가 대학생은 ‘청년’을 대표하며 문화·정치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주체가 되었다. 즉 ‘스튜던트 파워’는 문화적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저항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기에 박정권은 학생, 청년층의 동향에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박정희 정권은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을 새롭게 구성하고자 하였다. 박정권은 유신선포, 그리고 긴급조치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가를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청년층의 성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의 방향과는 다른 지점에서, 청년은 경제적 토대 위에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춘 집단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중문화를 향유하며 개성과 자유를 원했고, 그들만의 특징적인 문화 형성을 통해 국가와 긴장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긴장관계 속에서 그들의 정서를 청년문화로 표출했다. 즉 1970년대 전반기 청년문화는 정치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서 능동적 변화를 원하는 청년들의 구심점이었다. 이와 같은 청년들의 자발적 변화의 추동 속에서 박정희

29) 주창윤,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권 3호, 성곡언론문화재단, 2006, 97쪽. 1970년대 20~24세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학생의 인구비율은 9%를 넘지 못한다. 이에 대해 주창윤은 대학생을 주축으로 하는 청년문화를 소수 엘리트 문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했다.

30) 『文教政策의 새方向』, 『경향신문』, 1974.12.20, 2쪽. 신문기사에 의하면 한국의 만 18세~21세의 인구 중 “大學生비율은 7.2%로 英國(3.9%), 西獨(4.6%), 프랑스(3.4%) 등 先進國의 거의 두배”가 되었다.

정권은 청년을 그들의 입장에서 세대에 조응하는 '청년'이자 '국민'으로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권은 청년을 근대화의 주역이자 모범적인 국민상으로 제시했다.<sup>31)</sup> 사실 이러한 기획은 1960년대부터 시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청년을 '국가재건'의 주축으로 위치시켰다.<sup>32)</sup> 예컨대 국가는 지배담론을 체현한 주체 생산을 목표로 1968년 국민교육헌장을 반포하여 국가기획을 구체화시켰다.<sup>33)</sup> 이후 1970년대에 박정권은 '청년상'을 제시했는데 "국가가 필요로 하는 유능하고 성실하며, 국가관과 책임 관념이 투철한 인간"을 "훌륭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였다.<sup>34)</sup> 다시 말하자면 국가에 '필요'한 세력으로서 청년을 상정하고, 이를 관리하는 일은 유신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과업이었다.

이에 1970년대 국가는 건전한 '청년'을 주조하기 위한 일환으로 이들을 감시하고 단속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였다.<sup>35)</sup> 1973년 10월 2일 서울대학교 문리대에서 유신 이후 '유신헌법 철폐'를 외치는 최초의 시위가 전개되었다.<sup>36)</sup> 이 시위를 시작으로 각 대학에서 유신체제에 반기

31)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대 '청년'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37호, 문화과학사, 2004, 207-227쪽.

32) 국가재건회의, 「국민도의 재건 및 국민경제재건을 위한 지도이념과 실천요강」, 1961, 5-21쪽.

33) 「국민 교육헌장 선포」, 『경향신문』, 1968.12.5, 1쪽.

34) 대통령비서실, 『大統領閣下 指示事項—1973年度 年頭巡視』, 대통령비서실, 1973, 170쪽.

35) 이상록, 「박정희 체제의 '사회정화'담론과 청년문화」, 장문석·이상록 엮음,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2006, 352쪽. 이상록에 의하면 1970년대 국가의 단속과 통제의 대상은 "체제가 원하는 사회개혁의 미래를 이끌고 가기를 요구받는 청년층, 아직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미숙한 존재들로 규정되는 청소년층, 풍기문란 여성, 성매매자, 노점상 등 남성중심의 정상사회를 위협하는 사회의 이른바 주변화된 존재" 등이었다.

3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서울대학교 문리대 학생회 10·2 시위 선언문 〈선언문—정보과소통지 중지, 자유민주체제 확립, 국민의 생존권 보장, 김대중 사건의 진상 규

를 드는 동맹휴학 등의 저항이 계속되었다.<sup>37)</sup> 이후 긴급조치가 발동되자 대학생들은 거센 반발을 하였다. 이러한 대학생들의 강력한 저항은 국가 입장에서 고민거리이자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로 여겨졌다.

개인의 자유라는 것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우선할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테두리 내에서의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거리에 나와 「데모」를 한다든지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행위는 용납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 학생들 보고 데모 많이 하라고 학원에 자유를 준 것은 결코 아니다 이말입니다. 데모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학원에 자유가 없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착각이다.<sup>38)</sup>

위의 자료는 1974년 1월 18일, 학원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이다. 이것은 학생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시선을 보여주는 기자회견이다. 박정희는 대학생들의 저항적인 시위 행위를 “덮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평가하면서, 이것은 오히려 “사회를 혼란하게 한다”고 지적하며, 이런 행위는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자유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지배 질서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국가의 제재를 받아야 하며 개인의

명, 정치인과 언론인의 각성)(등록번호: 113729).

37) 서중석, 「3선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 『역사비평』 1, 역사문제연구소, 1988, 68-92쪽. 이 시위를 시작으로 유신헌법에 대한 집단적인 저항이 이어진다. 이후 각 대학의 일차적인 구호는 ‘유신헌법 철폐 및 개헌’이었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73년 12월부터 전개되었다. 이러한 민주화투쟁에 대하여 군사정권은 서명운동을 막기 위해 긴급조치 1호를 발동하고, 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및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을 발표한다. 긴급조치 4호는 민청학련 관련자 처벌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었다.

38) 문화공보부, 「학원사태에 대해-총화유신의 해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전문 내용」, 문화공보부, 1974, 145-146쪽.

자유는 공공의 질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지배질서의 균열을 초래하는 대학생의 “데모 행위”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70년대 ‘청년’은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집단인 동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경계해야 할 대상이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을 건전한 사회적 주체로 탈바꿈시켜야만 했다. 아래의 사료는 당시 박정희 정권이 주도하고자 했던 ‘청년상’의 모습을 담고 있다.

시급한 것은 강인한 훈련을 통한 체력의 향상이며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를 위한 봉사의 정신과 행동을 함양케 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새로운 청년상이 정립되어나가도록 하라.<sup>39)</sup>

위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박정희는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 새로운 청년상 정립에 관한 진작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새로운 청년상을 강조한 대목은 박정희 정권이 대중문화, 특히 청년문화의 퇴폐성을 비판한 지점과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해 박정권은 청년이 서구의 퇴폐적인 청년 문화를 향유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 그리고 사회에 대한 봉사 정신을 갖춘 ‘한국적 청년’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박정희 정권이 이상화한 ‘모범 청년’은 국가의 의지를 사회 속에 실천하는 존재인 것이다. 나아가 국가는 “조국의 중흥에 귀감공적을 이룩한 모범청년”을 선정하여 ‘한국청년대상’을 수여하면서 구체적인 ‘청년상’을 제시하였다.<sup>40)</sup> 이처럼 1970년대 등장한 ‘새로운 세대’는 국가가 끊임없이 ‘청년상’ 제시 및 정립을 통해 관리하는 대상이자 여러 방면에서 국가를 긴장시키는 존재였다.

39) 『공화건의 받고 강조 한국적 청년상 정립』, 『경향신문』, 1974.7.12, 1쪽.

40) 『한국청년대상제 마련 한국청년회의소』, 『동아일보』, 1975.5.7, 5쪽.

그리고 청년과 대중(청년)문화는 지배질서의 균열을 일으키며 ‘역기능적 문화’를 대두시키는 주된 요소였다.<sup>41)</sup> 1970년대 청년문화는 서구의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문화적 획일주의’를 지양하며 ‘문화적 다원주의’를 지향했다.<sup>42)</sup> 이러한 청년문화의 성격은 유신체제의 획일성에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또한 청년문화의 다양성은 ‘청바지 문화’로 축소·굴절되고 퇴폐문화로 인식되면서 이를 향유하는 ‘청년’ 주체까지 국가의 단속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러한 서구의 청년문화는 1960년대 말부터 ‘스튜던트 파워’, ‘히피 문화’를 통해 국내에 소개되었다.<sup>43)</sup> 그리고 1970년대 전반기 한국의 청년 문화는 기성 체제와 문화, 가치관에 회의를 느끼던 청년층에게 빠르게 흡수되었다. 장발이나 통기타, 청바지, 생맥주 같은 새로운 문화의 흡수와 소비는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정체성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다.<sup>44)</sup> 이러한 점에서 당시 한국의 청년문화는 미국 청년문화의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성세대와 구별되는 그들만의 정체성을 추구하려고 했다.

한편 국가는 이러한 성향의 청년문화가 고착화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국가는 청년과 대중(청년)문화를 통제하기 위해 ‘남자의 장발, 여성의 과잉노출, 유흥업소의 자정 이후 영업행위, 은어가 프

41) 허은, 『20세기 총력전하 한국인의 정체성과 식민주의』, 『한국사연구』 150, 한국사연구회, 2010, 261쪽. 허은은 1970년대 총력적 체제에 균열을 일으키는 ‘역기능적 문화’를 대중문화와 저항문화로 규정했다.

42) 김양미, 『담론 분석을 통해 본 세대문화론-청년문화론과 신세대론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6쪽.

43) 이만구·이홍구, 『대담-스튜던트 파워』, 『세대』, 세대사, 1969, 98-100쪽; 윤명로, 『히피족과 밝은 유럽의 밤』, 『신동아』, 동아일보사, 1971, 102-119쪽.

44) 김창남, 『‘유신문화’의 이중성과 대항문화』, 『역사비평』 32, 역사문제연구소, 1995, 121-132쪽.

린트된 옷' 등의 '퇴폐풍조'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sup>45)</sup> 이후 박정희 정권은 '경범죄 처벌법'을 발효하여 항목을 신설하는 등 범위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였다.<sup>46)</sup>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연예인, 공무원에게도 '퇴폐풍조'의 잣대는 적용되었다.<sup>47)</sup> 또한 그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비상사태에 따른 연예 시책' 발표 및 '방송정화실천요강'이 제정되는 등 대중문화를 본격적으로 억압했다.<sup>48)</sup> 국가가 취한 일련의 정책을 보면 청년문화에 대한 검열과 단속의 명분은 '퇴폐풍조'라는 시선 속에서 힘을 발휘했다. 박정희 정권은 청년문화 규제를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운동에 대한 통제도 정당화했던 것이다.

45) 『퇴폐풍조 일제단속 개시』, 『동아일보』, 1971.10.1, 7쪽. 남자의 장발과 여자의 과잉노출 등 이른바 퇴폐풍조 단속이 10월 1일 오전 9시를 기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됐다.

46) 총무처, 『비상국무회의록』, 1973.1.30. “경범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제6회)”. 박정희 정권은 경범죄처벌법 47개 항목 가운데 8개 항목을 신설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저해하거나 사회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왜곡 날조 유포한 행위(48호)

나. 장발한 남자, 저속한 옷차림과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행위(49호)

다. 투명옷을 입거나 치부 또는 지나친 신체의 노출(50호)

라. 비밀댄스교습행위 또는 장소제공자(51호)

마. 극장 경기장의 압표상(52호)

바. 경기장 역등에서의 새치기 행위(53호)

사. 출입금지구역 또는 시설에 함부로 들어간 자(54호)

아. 길거리에서 총포 또는 화약류 기타 폭발 우려가 있는 물건을 조작, 장난한 자(55호)

47) 『방송국마다 퇴폐풍조 추방 10월 유신 이후 장발 탤런트 수난』, 『동아일보』, 1972.11.6, 7쪽; 『공무원·직장인도 장발 강력히 단속』, 『동아일보』, 1974.6.6, 7쪽. 내무부는 지금까지 주로 청소년에 대해 단속해왔던 장발의 단속 범위를 넓혀 특히 공무원과 직장인, 연예인들의 장발을 강력히 단속하도록 관할 경찰에 지시했다. 또한 내무부는 공무원의 경우 기관장 책임 아래 장발을 깎도록 하고, 회사 등 일반직장에는 직장 책임자에게 장발을 막도록 협조 요청하고, 연예인의 경우 출연정지 등록취소 등 연예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강경 방침을 취하도록 했다.

48) 『방송정화실천요강』, 『경향신문』, 1975.5.26, 5쪽. 당시 강조된 실천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및 국민생활안정에 필요한 사항은 최우선적으로 보도한다’였다.

이러한 국가의 정책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 청년문화는 청바지·통기타·생맥주·장발 등으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이 되었다. 예컨대 “통기타를 못 치면 간첩이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통기타는 음악을 위한 도구로서의 차원을 넘어 문화적 기호로서 정착되었다.<sup>49)</sup> 뿐만 아니라 통기타를 들고 다니는 모습 자체가 젊음을 상징하는 것이었다.<sup>50)</sup> 이처럼 통기타에 문화적 상징이 부여될 수 있었던 것은 통기타가 기성세대와 청년을 구별시키는 기호로서 기능했기에 가능했다.

이처럼 집단화된 청년문화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청년문화를 둘러싼 논쟁도 제기되었다.<sup>51)</sup> ‘청년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근

49) 『젊은이 기타 붐: 30만대보급 한 달 만대이상 팔려』, 『조선일보』, 1973.3.17, 4쪽.  
기타 악기상들에 의하면 서울 시내에 팔리는 기타만도 전체적으로 하루에 약 3백 대 가량, 한 달이면 1만 대 이상이 팔리고 있다는 것이다.

50) 『10대의 登山裝備 〈필수품〉 통기타』, 『동아일보』, 1975.11.7, 7쪽.

51) <표4> 1970년대 청년문화 논쟁에 관한 주요 기사

년도	발표자, 제목
1970	남재희, 『청춘문화론』, 『세대』 79.
1971	이종구, 『실존적 현실과 이상적 현실 젊은이에게 주는 글』, 『신동아』 80.
	차인석, 『해외논단: 젊은이와 부정적 사유』, 『신동아』 80.
	하길중, 『장발과 기타와 마약의 세대. 현지에서 본 히피의 상태』, 『세대』 96.
	김중빈·남재희·이어령·이영호, 『좌담-한국의 청년문화』, 『세대』 98.
김중빈, 『오늘의 대학문화 그 현주소』, 『세대』 100.	
1974	김병익, 『오늘날의 ‘젊은’ 이상들』, 『동아일보』.
	정정기, 『생맥주만이 전부 아니다 이해 힘든 青年文化진단』, 『동아일보』.
	최인호, 『청년문화 선언』, 『한국일보』.
	박희섭, 『청년이여! 새 술을 빚어라』, 『세대』 131.
	『지금은 진정한 목소리가 들려야 할 때다』, 『대학신문』.
	김동현, 『젊은 세대』, 『신동아』.
	노재봉·이어령·최인호·한완상·현영하·오갑환, 『심포지움 ‘한국의 청년 문화’의 토론: 유행이나 반항이나』, 『신동아』.
	한완상, 『현대청년문화의 제문제』, 『신동아』.
	김병익, 『70년대의 작가: 문학과 사상의 밤 김주연 조해일 씨 강연』, 『동아일보』.
	김광일, 『청년의 소외와 참여의식: 정시의학 상담실에 비친 젊은이의 고』

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해 한국사회에서 청년문화는 진정 존재하는가, 청년문화가 있다면 대항문화인가, 하위문화인가 등의 문제를 놓고 첨예한 논쟁이 벌어졌다. 예컨대 지식계에서도 청년문화 논쟁은 기성 지식인, 대학언론 등의 참여로 청년문화의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뉘어 대립의 각을 세웠다.<sup>52)</sup> 이와 같이 1970년대 전반기 한국사회에서는 '청년문화'가 대중문화의 한 조류를 형성하면서 그것을 둘러싼 의미논쟁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문화의 첨예한 논쟁은 '생산적인' 특정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하지만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청년문화는 당대의 정치·경제·문화 등의 총체적 정황을 보여주는 문화 현상이었다. 그리고 영화계는 청년문화를 소비하는 청년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화생산의 동력으로 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청년문화의 이슈화는 이장호의 <별들의 고향>이 46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면서 대중문화계에서 확인되었다.

	뇌, 그들의 정신상황과 병이현상의 이해, 『세대』 134.
	김영효, 『새 청년상 정립을 위한 사상적 모색』, 『세대』 134.
	『특별기획, 청년문화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세대』 134.
	김병익, 『청년문화와 마스크』, 『신문평론』.

52) 김양미, 『담론 분석을 통해 본 세대문화론: 청년문화론과 신세대론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32-37쪽. 정치운동에 가담한 대학생과 기성세대에 속한 지식인은 대체적으로 청년문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대표적으로 임희섭, 한상복, 김병효, 김윤식, 그리고 각 대학신문들은 청년문화를 부정했다. 하지만 지식계 일각에서는 청년문화가 한국사회에 던지는 긍정적 의미들을 발견하고 재해석하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완상은 청년문화가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의식을 "반문화(대항문화)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개방체제에 가능한 젊은이들의 반항이며, 이것은 각종 사회 부조리에 대한 반항인 동시에 새로운 가치관을 제시하는 도전"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최경식은 서구의 청년문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한국의 청년문화에 대해 "블루진을 입는 심리가 단순히 서구 청년에 대한 모방 심리나 유행어의 편승이라기보다는 격식, 규율, 권위, 형식에 대한 반항이며 통기타를 연주하는 젊은이의 모습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침묵의 세대로서 자기표현"으로 보았다.

### 3. 저항과 ‘공모’의 이중성 – 〈바보들의 행진〉

시대에 관한 ‘사회·문화적’이해와 영화 제작과정에 대한 검토 작업이 수반되었을 때 청년영화의 특질에 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제작 단계에서 국가와 영화계의 안전장치로 작동한 ‘공모’를 포착함으로써 모순과 위기상황에 직면한 국가의 균열을 살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영화의 제작과정을 살피고 차별화 전략을 통해 ‘청년영화’로 호명된 〈바보들의 행진〉을 분석함으로써 저항과 ‘공모’의 이중적 함의를 읽어낼 것이다.

영화제작자들은 청년의 문화적 욕구에 주목하여 영화제작을 시도했는데 이는 곧 청년이 ‘소비의 주체’만이 아니라 ‘생산의 주체’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3)</sup> 이에 대한 확인은 영화제작자들이 시나리오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대중(청년)들로부터 검증된 인기 작품을 채택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예컨대 영화 〈별들의 고향〉의 시나리오는 1972년 9월부터 『조선일보』에 연재된 최인호의 소설이 원작이다.<sup>54)</sup> 이에 인기 대중소설의 영화화가 흥행에 직결되면서 영화 원작의 판권경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기도 했다.<sup>55)</sup> 더구나 대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소설은 흥행을 보

53) 황혜진, 『1970년대 유신체제기의 한국영화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14쪽.

54) 『베스트셀러』, 『매일경제』, 1974.4.30, 6쪽. 조선일보에 연재된 소설 〈별들의 고향〉은 1973년에 단행본으로 출간되어 1975년까지 40여 만부가 팔리는 기록을 세웠다. 최인호는 영화계에 활력을 불어넣은 작가이다. 영화화된 그의 소설들은 ‘최인호의 영화시대’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다.

55) 「다시 봄이는 文藝映畵」, 『동아일보』, 1975.4.14, 5쪽; 「영화 〈영자의 전성시대〉 싸고 번지는 〈저작권침해〉」, 『동아일보』, 1975.9.20, 5쪽. 문예작품은 최저 10만원의 원작료를 받은 것을 비롯해 최고는 崔仁浩의 장편 「내마음의 풍차」와 「바보들의 행진」이 원작료, 각색료, 주제가 작사료를 합해 각각 2백 50만원씩의 작품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설의 저작권 분쟁은 청년영화의 소재로서 대중소설이 차지하는

장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1970년대 내내 “대학생이 베스트셀러 시장의 단골고객”이었기 때문이다.<sup>56)</sup> 이처럼 청년은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생산주체’로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했다.

또한 영화계가 청년문화와 청년에 주목했던 배경에는 당시 침체된 영화계의 현실이 있었다. 1970년대 전반기 영화계는 침체를 거듭하고 있었고<sup>57)</sup> 영화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제작편수의 제한 및 흥행의 위축을 면치 못했다.<sup>58)</sup> 이러한 불황은 TV의 급격한 증가와 각종 여가 산업의 다양화로 인한 관객 감소로 나타났다.<sup>59)</sup> 또한 박정희 정권의 영화정책, 그 중에서도 검열은 영화의 침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sup>60)</sup> 박정권이 실시한 영화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화계에 영향을 미친 것은 ‘제 4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서였다.<sup>61)</sup> 박정희 정권은 ‘침체된 영화계에 대한 지

위상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 56) 유재천, 『출판·독서와 대중문화』, 『세대』, 세대사, 1978.5, 244쪽. 대학생들은 출판 시장의 주요 소비자로서 ‘문예물’의 흐름을 주도했다.
- 57) 『예론 여론조사서 관계조사서 관계인사들 지적 “방화불황타개 <저질> 탈피에서”』, 『동아일보』, 1971.7.24, 5쪽.
- 58) <표 5> 서울開封館 年度別 偏黨觀覽數

구분 연도	상영편수		편당관객수		관객수대비	
	방화	외화	방화	외화	방화	외화
1969	233	90	42,306	100,927	48,9	51,1
1970	234	102	30,157	62,063	41,4	58,6
1971	196	102	30,522	65,209	32,3	67,7
1972	142	104	24,593	69,887	27,2	72,8
1973	101	90	17,915	84,134	19,3	80,7
1974	155	85	18,494	76,668	30,5	69,5
1975	121	77	18,117	80,353	26,2	73,8

자료: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초창기-1976)』, 1977, 160쪽 참조하여 재구성.

- 59) 『안방극장에 빼앗긴 관객을 찾기 위해 관람료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극장가』, 『경향신문』, 1974.5.16, 7쪽; 『새 단골 誘致에 안간힘 TV에 관객 빼앗긴 再開封 영화관』, 『경향신문』, 1975.5.10, 4쪽.
- 60) 이영일, 『영화정책의 문제점』, 『경향신문』, 1974.1.31, 5쪽.
- 61) 1970년 전반기에 두 차례의 영화법 개정이 실시되었다. 1970년에 제3차 영화법 개정을 통해 2차 영화법 개정으로 축소되었던 의무제작 편수를 늘렸다. 개정된 영화법은

원'이라는 미명 아래 영화 제작 전반을 통제함으로써 검열을 대중문화의 영역까지 확대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영화제작사와 영화인들은 새로운 관객을 확보하기 위해 고심했다. 영화제작자들은 관객층 공급을 위해 청년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를 반영한 영화제작에 나섰다. 다시 말해 청년문화와 청년층의 대두는 제작사와 영화인들에게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기회이자,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먼저, 영화제작자들은 영화의 흥행을 위해 청년을 영화 관객으로 흡수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청년영화의 제작은 이러한 과정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sup>62)</sup> 다시 말해 청년영화는 박정희 정권의 영화정책 아래 새로운 관객층 확보를 위한 영화제작자들의 기획의 일환이었다.

1970년대 신진감독들의 등장은 앞서 언급한 시나리오의 선택만큼이나 영화계의 새로운 경향이었다. 이들은 “제 3세대” 감독으로 칭해졌고, 당시 제 3세대 감독이란, “일본문화의 영향에 속했던 그 전 작가들과는 다른 작품”을 제작하는 영화감독을 일컫는 것이었다.<sup>63)</sup> 대표적으로 하길종, 이장호, 김호선 등이 있으며, 이들은 청년영화 감독으로도 주목받았다. 이처럼 신진감독의 등장은 영화제작자들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새로운 시나리오로 새로운 감각의 청년영화 제작을 가능하게 하였다.

신진감독들은 자신들이 제작한 영화를 1960년대의 청춘물과는 다른 ‘영화’라고 강조하였다. 1960년대 청춘영화의 캐츠프레이즈는 “섹스·스릴·스피드”<sup>64)</sup>였으며 ‘반사회적이거나 일탈적인 문화를 의미하는 하위문

---

한국영화진흥조합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후 제 4차 영화법을 통해 시나리오의 사전 검열과 필름의 실사검열을 실시하는 이중검열을 감행했다.

62) 장병림, 『현대인은 어째서 영화를 좋아하는가?』, 『월간 영화』 제3권 8호, 1975, 25쪽. 호현찬, 『관객은 영화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월간 영화』 제3권 8호, 1975, 40쪽.

63) 안병섭, 『제 3세대 영화의 기수』, 『월간 영화』 제3권 4호, 1975, 56쪽.

64) 『스크린에 담긴 빌러은 청춘영화들』, 『조선일보』, 1964.8.28, 3쪽.

화적이었다.<sup>65)</sup> 1970년대 영화제작자들은 '청춘영화'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극복하고 차별화를 시도하며 그들의 영화를 "청년영화"로 호명하고자 했다. 아래의 자료는 청년영화 호명에 대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것은 '청년문화의 기수'로 불리는 최인호가 한국일보에 기고한 글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오토바이, 요트나 타고 아이스크림이나 먹어대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단세포적 청춘영화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젊은이들의 꿈과 고뇌, 슬픔, 기쁨을 리얼하게 영상화한 이 영화는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청년영화의 한 획을 그어줄 작품이 아닐는지.<sup>66)</sup>

위의 자료는 청년영화를 대표하는 <바보들의 행진>을 언급한 기사의 일부이다. 최인호는 <바보들의 행진>이 60년대의 "단세포적 청춘영화"와는 다른 선상에 있는 차별화된 청년영화임을 선언하였다. 즉, <바보들의 행진>은 "젊은이들의 꿈과 고뇌, 슬픔, 기쁨"을 표현하는 "본격적인 청년영화"였다는 것이다.<sup>67)</sup> 이것은 청년영화가 당대 청년의 고민과 그들의 문화를 반영하여 구성된 결과물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감독 하길중은 영화 <바보들의 행진>이 "과거에 대학생 영화를 표방한 채 정작 대학생과는 거리가 멀었던 청춘영화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이들에 의한, 젊은이들의 영화"라고 덧붙였다.<sup>68)</sup>

65) 신현준, 뷔리야 사왕초트, 『음악적 공공 공간과 '순수/퇴폐'의 문화정치(학) - 1970년대 냉전기 한국과 태국에서 청년문화의 출현과 종언』, 성공회대 동아시아연구소 편, 『냉전 아시아의 문화풍경 2 - 1960-1970년대』, 현실문화, 2009, 458-460쪽.

66) 최인호, 『문학과 영화와의 약속』, 『한국일보』, 1975.6.1, 5쪽.

67) 『바보들의 行進 영화화』, 『동아일보』, 1975.2.15, 5쪽.

68) 『다큐멘터리 터치의 대학생 얘기, 새 영화, 하길중 감독<바보들의 행진>』, 『동아일보』, 1975.6.8, 5쪽.

이와 같은 1960년대 ‘청춘영화’와의 차별화를 통해, ‘청년영화’의 시작을 알렸던 작품이 바로 〈별들의 고향〉이다. 감독 이장호는 〈별들의 고향〉을 “빠른 템포와 신선하고 감각적인 영상”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했으며, “스토리텔링에 멈추고 말았던 종전의 소설영화와 달리 영화적인 기법을 앞세웠”음을 강조하였다.<sup>69)</sup> 이와 같은 영화 제작 전략으로 인해 〈별들의 고향〉은 1974년, ‘국도극장 46만’이라는 한국영화흥행 기록을 달성했다. 이후 영화 〈별들의 고향〉의 흥행에 힘입어 최인호의 또 다른 소설인 〈바보들의 행진〉이 영화화된 것이다.<sup>70)</sup> 이처럼 청년영화의 제작은 청년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소설과 ‘청년감독’이라는 조합으로 생산되었으며 대중문화의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완성된 청년영화는 검열을 거쳐 개봉될 수 있었다. 당시 제작된 모든 영화는 문화공보부에 제작신고서를 제출하여 개봉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이다. 영화 〈바보들의 행진〉 역시 마찬가지였다. 〈바보들의 행진〉 제작신고서에는 “건설적인 내일의 젊은이 상”을 제시하는 영화로 신고·접수되었다.<sup>71)</sup>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영화정책이 영화제작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준다. 즉, 청년영화는 제작 과정에서부터 배급 단계까지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이라 일컫는 제 4차 영화법에 의해 검열과 통제를 받았으며, 추가적으로 영화 내용을 재구성하도록 요

69) 『별들의 고향 크랭크업』, 『동아일보』, 1974.4.9, 8쪽.

70) 『관객50만을 동원한 〈별들의 고향〉』, 『경향신문』, 1974.11.26, 8쪽; 『문공부 최우수 영화 〈별들의 고향〉 등 선정』, 『매일경제』, 1974.4.25, 8쪽; 『70年代 感性을 明快하게 묘사 小説家 崔仁浩』, 『동아일보』, 1974.3.29, 5쪽. 기사에 의하면 최인호는 “기성문단으로부터 70년대 의식과 감성을 가장 명쾌하게 묘사하는 역량 있는 작가”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청년문화의 상징”이 되었다.

71) 주식회사 화천공사, 『〈바보들의 행진〉 영화제작신고서』, 1974.12.27; 박유희, 『박정희 정권기 영화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학』, 『역사비평』 99, 역사비평사, 2012, 67쪽에서 재인용.

구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영화 〈바보들의 행진〉이 제작되고 대중들의 반응을 이끌어 냈다는 것은 1970년대의 국가와 대중, 영화계 등의 단일하지 않은 결을 읽어낼 수 있는 지점이다. 1970년대 유신체제를 구현하는 동반적 개념은 '건전'과 '명량'이었다. 하지만 국가가 권장하고 명명한 '명량'과 '건전'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을 〈바보들의 행진〉은 여성(주인공 영자)의 단정하지 못한 옷차림과 말투 등을 통해서도 보여준다.<sup>72)</sup> 또한 영화는 일상의 기호를 즐기는 청년의 모습을 여과 없이 제시한다. 〈바보들의 행진〉은 단속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건전'하지 못한 장발을 고수하고 시계를 맡기면서까지 생맥주집에서 맥주를 마시며 음악다방에서 포크송을 듣고 미팅하는 등의 청년들의 행위를 통해 "문화적 저항"을 표현하고 있다.<sup>73)</sup>

이처럼 영화 속 청년은 문화적 욕망을 감추지 않는 적극적 행위자로 표상되지만 사회의 현실에 좌절한다. 〈바보들의 행진〉은 당시 청년들이 느끼고 있던 "현대인의 고독"을 보여주었다.<sup>74)</sup> 즉 "선량하고 투박하다 못해 멍청스러워 보이는" 주인공은 "바보병신"이라고 불리며 연애에 실패하고,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모습 등으로 등장한다. 감독 하길중은 "오늘날 젊은이의 꿈과 좌절, 그리고 현실을 묘사"하기 위해 영철이란 인물을 '추가'하였다고 말한다.<sup>75)</sup> 예컨대 오프닝 장면에서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영철이 결국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것은 국가의

72) 권현정, 『청년 '행위'의 정치성과 그 저항(불)가능성에 대하여-영화 〈바보들의 행진〉을 중심으로』, 『코기토』 81,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594쪽.

73) 허수, 『1970년대 청년문화론』,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 323쪽.

74) 김진찬, 『젊은이의 꿈과 현실과 좌절』, 『월간 영화』, 영화진흥공사, 1975, 77-78쪽.

75) 한국영상자료원·부산국제영화제 기획, 『하길중전집1-태를 위한 과거분사 백마타고 온 포포』, 한국영상자료원, 2009.

기준으로부터 배제된 ‘청년들의 좌절’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청년은 영화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동시에, 좌절하고 소외받는 존재로 비춰진다. 한편 〈바보들의 행진〉에서 청년은 사회 속에서 일탈행위를 일삼는 주체로, 나아가 국가의 통제 및 관리 대상으로 표현된다. 예컨대 영철은 기독교계 대학 교정에서 담배를 피우다 교수에게 뺨을 맞고 그에 대한 대항 심리로 스트리킹을 한다.<sup>76)</sup>

그렇지만 유의해야 할 것은 영화 속 청년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단속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다는 것이다. 즉 영화 속 청년은 ‘명량한 바보’로 그려진다.<sup>77)</sup> 이 ‘명량한 바보’는 ‘불건전성’으로 그들의 행위를 표출하였다. 예컨대 병태와 영철은 경찰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끌려가게 되면서도 미팅에 늦은 것, 머리 깎이지 않을 것 등을 고민할 뿐이다. 그들은 경찰의 규제를 알고는 있지만 자신들의 행동을 그에 맞게 고치려고 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영화 속 청년은 불건전한 행위를 통해 국가가 원하는 ‘건전’과 ‘명량’을 가볍게 치부하고 비틀기를 시도한다. 경찰이 통제하더라도 병태와 영철은 ‘일탈의 욕망’을 억제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그들은 경찰서에서 도망쳐 나와 미

76) 『미국 대학가 휩쓰는 스트리킹 물결』, 『동아일보』, 1974.3.27, 5쪽; 『스트리킹 한국 상륙』, 『동아일보』, 1974.3.13, 7쪽; 『스트리킹 기사는 아예 취급 말도록』, 『경향신문』, 1974.4.23, 4쪽; 『警察에먹이는 스트리킹』, 『경향신문』, 1974.3.20, 7쪽. 이 장면에서 영철은 “이건 한국식 스트리킹이다”를 외친다. 영철의 대사인 “한국식 스트리킹”은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한국적 민주주의, 즉 경제성장과 반공을 위해서는 민주주의적 절차를 부차화시킬 수 있다는 한국적 민주주의에 대한 풍자이다. 당시 전국적으로 확산된 스트리킹은 신체적 노출과 몸을 통한 감정 표현이라는 ‘일탈행위’로서 당대 ‘충격적인 사건’으로까지 인식되었다. 이를 규제하기 위해 100여명의 수사관들로 구성된 “스트리킹 수사본부”까지 만들어졌지만 스트리킹이라는 ‘음란죄’ 위반자들을 검거하는 데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했다.

77) 최은영, 『1970년대 대중소설의 ‘청년’ 표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59-64쪽.

팅 장소로 향한다. 즉, 〈바보들의 행진〉 속에서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감추지 않는 주체로 등장한다. 이처럼 〈바보들의 행진〉은 대학생들의 생활을 통해서 “젊은 세대의 의식세계”에 초점을 맞춘 영화로서 국가의 통제에도 자신을 실현하려는 청년 대학생들의 욕망을 보여준다.<sup>78)</sup>

또한 〈바보들의 행진〉은 청년들의 ‘코믹한’ 모습으로부터 출발한다. 영화의 시작 장면인 징병검사에서 ‘경쾌한 행진곡에 맞춘 다리들의 행렬’은 당시 “퍽 코믹하다”고 해석되었다. 경찰관의 학생 추격 장면 또한, “경찰관의 표정이 더없이 친근미를 주고”, “경찰과 학생 사이는 벽이 없고 隔意도 없는” 장면으로 나타난다.<sup>79)</sup> 남녀학생의 데이트 풍경도 퍽 밝고 명랑한 모습이었다. 이는 당시 국가가 청년에게 요구했던 “건전성과 명랑성”과도 부합하는 것이었다.<sup>80)</sup> 영화 전반에 걸쳐 대학생들의 에피소드를 코믹하게 구성한 것은 이런 이유와 관련이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박정희 정권은 청년을 감시하고 단속하며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였다. 영화계는 이를 의식하고, 국가가 선호하는 “밝고 명랑한 내일, 성장, 입대, 건설, 내일의 젊은이 상” 등을 반영한 청년상을 제시했다.<sup>81)</sup> 이와 같은 영화제작은 이윤을 고려하면서 국가의 요구에도 부응하는 상업영화의 전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당대 상업 영화로서의 청년영화는 통제 위주의 국가를 비판하면서도 요구를 수용하는 이중적 전략을 취하고 있다. 요컨대 청년영화가 구현하는 담론 내의 모순

78) 현상열, 『영화 바보들의 행진, 젊은 세대의 의식 반사(反射)』, 『여성동아』, 동아일보사, 1975.8, 32-34쪽.

79) 김진찬, 『젊은이의 꿈과 좌절—하길중 감독의 〈바보들의 행진〉』, 『월간영화』, 영화진흥공사, 1975.7, 78쪽.

80)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초창기-1976)』, 영화진흥공사, 1977, 225-227쪽.

81) 박유희, 『박정희 정권기 영화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할』, 『역사비평』 99, 역사비평사, 2012, 67쪽.

점 즉, 억압에 대한 저항과 명랑성은 영화를 생산하는 관련자들의 의도적 공모가 내재되어 있는 다각적 시선이다.

#### 4. 결론

1970년대 박정희 정권기의 급속한 산업화는 ‘대중소비사회’를 앞당겼다.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주 대상은 기성세대보다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며 성장한 청년이었다. 특히 청년층은 청바지, 통기타, 장발, 생맥주 등 대중문화를 빠르게 받아들이며 소비의 주체가 되었다. 즉 청년의 소비 자체는 집단화되어 문화현상으로서 세대의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였다. 이에 국가는 청년문화의 소비층 확대를 경계하고, 지배체제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 하에 국가는 청년을 ‘주조’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청년문화를 단속할 명분을 획득한 것이다. 한편 영화계 역시 청년문화의 사회적 이슈화와 함께 문화의 주체로 급부상한 청년을 주목했다. 이처럼 국가와 영화계는 ‘문화의 주체’인 청년을 향해 각기 다른 목적에 부합한 접근을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영화계는 ‘청년’에 주목하여 ‘청년영화’를 생산하였다. 이 시기 영화계는 유신체제 아래에서 침체와 정책적 외압 등의 통제로 이어지는 열악한 상황에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화계의 입장에서, 문화의 생산과 소비의 주체로 등장한 청년은 영화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청년 관객을 겨냥한 소재의 변화를 꾀함과 동시에 젊은 감독들은 청년영화 생산을 통해 영화 산업의 불황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영화관에서는 청년이 소비의 주체가 되었고, 촬영장에서는 젊은 감독들이 영화 생산자로서 새로운 감각으로 제작의

활기를 붙여 넣었다. 당시 영화제작자들은 상업적 이윤을 목적으로, 대중의 다양한 삶의 욕망에 주목하여 이를 영화 속에 투영시켜 나갔다. 그 결과 청년영화는 영화를 관람하는 대중으로 하여금 영화 속 인물들과의 일체감을 형성시키면서 흥행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맥락 하에 본 글은 영화 〈바보들의 행진〉을 작품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영화 속 청년은 국가의 요구에 부합한 '모범적 청년'의 모습을 요구받지만 끊임없이 우회하며 충돌한다. 예컨대 영화 속 청년들은 스트리킹, 장발 등의 '불건전성'으로 '건전한' 청년상에 비틀기를 시도하고 억압과 모순으로 가득한 국가를 폭로한다. 그리고 그들은 무기한 휴가, 장발단속 등의 규제를 받는 상황에서 좌절과 우울감을 느끼지만, 그들만의 '명량성'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들의 '명량'은 유신 체제 내에서 순응하는 것만을 '명량'으로 간주하는 국가의 그것과는 온도가 달랐다. 또한 '명량'은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내재한 청년영화가 제작에서 상영까지 가능했던 이유, 즉 '공모'의 지점을 드러내는 중요한 특질이다. 즉 청년영화가 국가의 이중 검열 속에서 제작부터 상영까지 가능한 영화로 위치한 것은 '건전'을 강조하는 국가의 정책과 상이한 대목이다. 바꿔 말하자면 이것은 박정희 정권의 모순과 위기를 유추할 수 있는 균열이자 파열음이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세대』, 『신동아』, 『여성동아』, 『일간스포츠』, 『조선일보』, 『한국일보』, 『월간 영화』.

국가재건회의, 『국민도의 재건 및 국민경제재건을 위한 지도이념과 실천요강』, 1961.

대통령비서실,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대통령 비서실, 1970-1975).

문화공보부, 『학원사태에 대해: 총화유신의 해 박정희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전문 내용』, 문화공보부, 1974.

박정희, 『민족중흥의 길』, 광명출판사, 1978.

### · 영상자료

〈바보들의 행진〉(하길중, 1975).

### 2. 논문과 단행본

권은선, 『1970년대 한국영화연구—생체정치, 질병, 히스테리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권현정, 『청년 '행위'의 정치성과 그 저항(불)가능성에 대하여—영화 〈바보들의 행진〉을 중심으로』, 『코기토』 81,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7, 586-611쪽.

김기란, 『청년/대항문화의 위상학적 공간으로서의 70년대 소극장운동 고찰』, 『대중서사연구』 22권 3호, 대중서사학회, 2016, 171-224쪽.

김양미, 『담론 분석을 통해 본 세대문화론—청년문화론과 신세대론의 비교』,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김한상, 『박정희 정권기 가족사서의 균열과 저항—김수현의 멜로영화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15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09, 283-313쪽.

박유희, 『박정희 정권기 영화검열과 감성 재현의 역학』, 『역사비평』 99, 역사비평사, 2012, 42-90쪽.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자료편람(초창기-1976)』, 1977.

영화진흥공사, 『한국영화작품전집 1971-1985』, 1986.

유선영, 『과민족화 프로젝트와 호스티스 영화』, 공제욱 엮음, 『국가와 일상—박정희 시대』, 한울, 2008, 332-398쪽.

- 이기훈, 『청년, 근대의 표상—1920년대 ‘청년’담론의 형성과 변화』, 『문화과학』 37호, 문화과학사, 2004, 207-227쪽.
- 이상록, 『박정희 체제의 ‘사회정화’담론과 청년문화』, 장문석·이상록 엮음, 『근대의 경계에서 독재를 읽다』, 그린비, 2006, 335-376쪽.
- 이선미, 『‘청년’ 연애학 개론의 정치성과 최인호 소설』, 『대중서사연구』 16권 2호, 대중서사학회, 2010, 79-112쪽.
- 이하나, 『국가와 영화—1950~60년대 ‘대한민국’의 문화재건과 영화』, 혜안, 2013.
- 서중석, 『3선개헌반대, 민청학련투쟁, 반유신투쟁』, 『역사비평』 1, 역사문제연구소, 1988, 68-92쪽.
- 송아름, 『두 개의 “별들의 고향”과 “청년문화”의 의도적 접속』, 『인문논총』 73권 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123-155쪽.
- 송은영, 『1960~19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 『상허학보』 32집, 상허학회, 2011, 187-226쪽.
- 조희연, 『박정희와 개발독재시대—5·16에서 10·26까지』, 역사비평사, 2007.
- 주창윤,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권 3호, 언론과 사회, 2006, 73-104쪽.
- 최은영, 『1970년대 대중소설의 ‘청년’ 표상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한국영상자료원·부산국제영화제 기획, 『하길종진집1—태를 위한 과거분사 백마타고 온 또또』, 한국영상자료원, 2009.
- 허 수, 『1970년대 청년문화론』,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 318-324쪽.
- 허 은, 『20세기 총력전하 한국인의 정체성과 식민주주의』, 『한국사연구』 150, 한국사연구회, 2010, 227-269쪽.
- 홍혜정, 『1970년대 청년영화의 감각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황병주, 『박정희 체제의 지배담론—근대화 담론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황혜진, 『1970년대 유신체제의 한국영화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 Abstract

Youth Films in the 1970s, the Rupture between Resistance and 'Conspiracy'

Son, Young-Nim(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reviewed the double strategy and rupture between resistance and conspiracy of youth films produced under the formation of the 'youth' and restriction on the popular culture in the 1970s. The youth, with culture and educational background based on economic growth of the time, were designated as cultural subjects and regarded as the object of vigilance at the same time. Their behaviors in enjoying the cultural trends of the time were defined as 'decadence' by the State, which meant that the 'youth' or the popular youth culture was the target of crackdown. The State tried to form a new generation through the 'youth' mainstream. Meanwhile, in filmdom, youth rapidly appeared as the cultural subject and was regarded as film material and significant consumers.

The film industry was recovering from depression and so the focus was directed towards the youth, while the film policy of the socio-political situation called Yusin System accelerated the depression in film business through their control over general film production. Given the circumstances, film-makers came to produce 'youth films' as a way to pander to the young consumer market. The niche market of youth films under the strict control of double-censorship implies that there was a certain 'conspiracy' between the State and stake-holders. That is, it can be said that youth films were the result of a rupture in which the desires of numerous interest groups competed under the double strategy of social criticism and acceptance of governmental demands.

The young people depicted in youth films were the subject of not only deviant behavior, but also the 'gaiety and soundness' correspondent to governmental standards. That is, the gaiety of the young in youth films was to indirectly show their resistance against the restriction, connected with the intention of 'conspiracy'.

(Keywords: 1970s, popular culture, mainstream of the youth, youth films, gaiety, conspiracy)

1970년대 청년영화, 저항과 '공모'의 균열 / 손영남 235

논문투고일 : 2018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 2018년 5월 5일

수정완료일 : 2018년 5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5월 14일